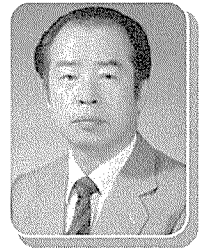


특집 : 한국도서관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특별기고'

# 회고와 소망



글 · 정필모\*

필자는 1960년대 초기부터 도서관협회와 인연을 맺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나는 협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때문인지 또는 세월이 많이 지나서 내 기억에서 모두 사라졌는지 초기의 상황은 생각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20여년이 지나서 1987년에 이춘희(李春熙) 교수가 협회의 제16대 회장에 선출되자 이 교수의 권유로 협회 부회장이 되었으나 임기동안에 무엇 하나 기억될만한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쳤다. 그러나 차제에 초창기부터 내가 마음속에 지녔던 소망을 여기에 간단히 밝히고자 한다.

나는 중앙대학교에서 영문학과의 학부과정과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임시직으로 도서관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1963년도에 중앙대학교에 도서관학과가 창설되면서 전연 뜻하지도 않았던 도서관학과의 교수직에 오르게 되었다. 물론 나는 교수직에 종사하는 것이 소망이었지만 나의 전공과는 전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래도 혼자서 독학을 할 수밖에 없었으나 도서관학 분야의 자료가 없어서 애로가 많았다.

## 圖書는 文獻으로

한편 대략 10년이 지나서부터 [도서관학]이라는 학문명칭과 [도서] [도서관]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점차 회의를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동양에 있어서 19세기 말기까지의 역대의 기록자료에 대한 명칭을 면밀히 조사해 보니; 冊, 典, 典冊, 竹帛,

志, 記, 傳, 典籍, 書, 書冊, 書策, 書籍, 文, 文籍, 圖籍, 文獻, 卷, 卷物, 書物, 文書 등이 있고 圖書라는 명칭은 없었다. 그런데 1955-56년도에 편찬된 일본의 (諸橋轍次著) 大漢和辭典에서 보면 '圖書'는 '河圖洛書'를 약(略)한 것이라고 했다. 이를 미루어 보면 '圖書'라는 낱말은 20세기 초기에 새로 만들어진 낱말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양에 있어서 역대의 기록류의 통칭은 복잡하고 그 종류가 많으나, 이들을 기록류에 대한 象形的인 개념을 가지는 통칭과 知的인 의미를 表象하는 개념을 가지는 통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에 속하는 것은 冊, 典, 典冊, 竹帛, 典籍, 書, 書冊, 書策, 書籍, 文籍, 文物, 卷, 卷物, 書物 등이며, 후자에 속하는 것은 志, 記, 傳, 文, 文獻 등이라고 생각된다. 이 가운데 특히 文獻은 기록류의 지적인 의미를 表象하는 동시에 기록류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文獻'을 기록류의 汎稱으로 삼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 圖書館은 文獻館 또는 文獻情報館으로

동양에 있어서의 역대의 도서관의 명칭을 조사해 보니; 19세기 이전까지는 '圖書館'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閣, 觀, 庫, 府, 樓, 殿, 館, 堂, 室, 齋, 跡, 架, 亭, 房, 軒 등의 어떤 건물이나 시설을 의미하는 문자 앞이 고유명사나 어떤 기록류를 상징하는 듯한 추상적인 문자를 붙여서 개

\* 전 한국도서관협회 전문위원장

개의 도서관을 지칭하였다.

‘圖書館’이라는 명칭은 19세기 말기나 20세기 초기부터 쓰이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바로 동양에서 서양의 문화를 도입하기 시작한 시기다. 초기에는 주로 일본이 서양의 문화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서양의 언어를 동양의 언어로 해설하는 외국어사전을 상당히 많이 출판하였다. 그러나 동양제국과 서양제국간의 문물제도가 서로 다른 점이 많았기 때문에 낱말의 번역에 있어서 무리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예는 우선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Library와 Bibliothek를 번역한데서도 찾아 볼 수 있다.

1871년에 일본에서 출판된 [和譯英辭林]에서는 Library를 ‘도서를 모아두는 곳’라고 번역하였고, 역시 1871년에 출판된 [佛和辭典]에서는 Bibliothek를 ‘書庫’라고 번역하였다. 한편 1873년에 출판된 [獨和字典]에서는 Bibliothek를 ‘書籍, 文庫’라고 번역하였고, 1887년에 출판된 [英和字典]에서는 Library가 ‘書房, 書庫, 書籍館’이라고 번역 되었으며, 1893년에 발행된 [佛和字典]에서는 ‘典籍類聚, 書架, 文庫’라고 번역되었다. 또한 1904년에 출판된 [佛和大辭典]에서는 Bibliothek가 ‘圖書館’이라고 번역되었고, 그 이후에 출판된 외국어사전에서는 모두 ‘圖書館’이라고 통일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Library나 Bibliothek를 번역하는데 있어서 최초에는 ‘도서를 모아두는 곳’에서 → ‘文庫’ → ‘書籍縱覽所’ → ‘書籍館’ → ‘圖書館’이라고 변천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에 알맞은 낱말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미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文獻’이라는 낱말을 앞에 붙여서 ‘文獻館’이라고 하는 것이 격에 맞는 명칭이라고 생각된다.

司書는 文獻士로

현재 도서관에서 文獻을 담당하는 직분을 司書라고 하는데 이 낱말은 조선시대 世子侍講院에 두었던 정육품의 벼슬의 직분인데 이 직분이 언제부터 도서관의 문헌을 담당하는 직분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이 司書라는 명칭은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외의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직분명이다. 그러므로 圖書館을 文獻館으로 변경한다면 문헌을 다루는 직분은 文獻士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에서 말한 내용은 이미 30여 년 전인 1971년도에 도서관학회지(圖書館學會誌)에 [圖書館名稱의 변천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제시했는데 이것은 나의 소망이지만 아마도 도서관인 모두의 소망일 것이다. 그러나 그 후 현재까지 도서관 분야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차체에 다시 제안하는 바이다.

#### 圖書館學은 文獻情報學으로

필자는 1974년에 文獻情報學의 形成論理(한국비블리아)라는 논문을 썼고 이를 토대로 해서 1977년에 文獻情報學原論(亞細亞文化社)을 저술했다. 그리고 학계의 호응을 얻어서 이 책은 전국의 거의 모든 도서관학과에서 교과서로 채택되어 4번이나 개정판을 발행한 바 있다. 그 이후로 圖書館學科를 文獻情報學科로 갱신하자는 여론이 형성되어 1985년 전남대학을 선두로 하여 전국의 ‘도서관학과’가 2,3년 내에 모두 ‘문헌정보학과’로 변경되어 통일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논의되어오던 학회명칭도 1989년의 정기총회에서 ‘文獻情報學會’로 개정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되었고, 학회지의 서명도 ‘문헌정보학회지’로 변경됨으로서 ‘文獻情報學’은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학문명칭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것은 내 일생의 가장 큰 보람이요 영광이라고 생각된다. 